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유배 체험과 연군 의식 고찰*

남정희**

— <차 례> —

1. 문제 제기
2. 1727년 무렵 이진유의 현실적 국면
3. 유배지의 공간 분석과 유배의 체험
 - 1) 樂土와 遠惡地의 중층성
 - 2) 사시의 부조화와 불안의 공간
4. ‘思美人’의 긴장과 연군 의식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727년 추자도로 유배를 간 소론계 사대부인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을 대상으로 하여서 작자가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배의 공간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면서 드러내는 의식 지향이 무엇인지로 논점을 맞추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유배지를 중층적인 두 공간으로 분할하여 분석하고, 화자가 시간과 공간의 배열과 배치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체험의 의미를 밝혔다. 유배의 공간에서 작자가 드러내는 연군의 감정은 전통적인 군신 관계의 도덕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 역시 동반되었다. 작품 속에서 유배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작자와 님의 도덕적인 권력 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속사미인곡>에서 작자는 직설적인 목소리로 연군의 정서를 표현하고 개인이 경험한 시련을 보다 사실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의 태도는 이상적인 군신의 관계를 지탱하는 구조와 관념에 더욱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처지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6876)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점은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이 후기 사대부 유배가사의 변모의 구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는 지를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이진유, 속사미인곡, 유배지, 유배 체험, 연군의식, 중층성, 18세기

1. 문제 제기

영조 초기 이진유가 창작한 <속사미인곡>은 시대적 격랑을 타고 있던 사대부 작가의 내면 풍경과 정치적 상황을 드러낸 유배가사이다. 이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유배의 체험이 18세기 초엽 소론 사대부의 의식과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의미 있게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속사미인곡>은 사대부 유배가사의 규범적인 전통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고유한 작품 내적 특성과 의식적 지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연구사의 초기인 1950년대에 이병기가 처음으로 작품을 소개하였고¹⁾, 그 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출하였다.

<속사미인곡>에 대한 선행 연구사는 크게 두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는 사대부 유배가사의 전체 구도에서 조선후기 유배가사의 일원으로 <속사미인곡>의 작품적 위상과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²⁾ 둘째는 창작의

1) 이병기,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집, 1956, 116~123쪽.

2) 서원섭,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 연구』,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서, 2004.; <속사미인곡>을 분석 대상으로 한 개별 작품론이나 최근 10여 년 이래의 학위 논문 역시 대체로 첫 번째 연구 방향으로 포괄되면서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 서원섭, 『속사미인곡 연구』,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205~227쪽.; 이상무, 『유배가사연구』,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0.; 이재식, 『유배가사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3.; 정인숙, 『조선후기 연군가사의 전개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이재준,

시간이 엇비슷하게 조우하는 다른 사대부 가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작품의 개별성을 추출하려는 것이다.³⁾ 전자는 통시적으로 이전 시기 작품과의 관계망 속에서 창작의 문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속사미인곡> 역시 정철의 양미인곡 가사 이후에 연달아 나타나는 美人曲 계열의 가사로 파악하였다. 또한 <속사미인곡>에는 여성화자와 남성화자가 혼재되어 있고 유배의 노정과 유배지의 삶이 사실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속사미인곡>을 후기 유배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후자는 주로 작품의 공시성에 주목하면서 다른 사대부 가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속사미인곡>의 독자적인 특성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는 창작의 시간이 된 영조 초반의 역사적 환경을 전제하고, 작품 속에서 전대의 연군 의식이 변질되어서 층의 이념은 약해지고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을 서술하는 태도가 강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속사미인곡>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유배가사의 전개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데 더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관점과 방법은 <속사미인곡>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계열화시켜서 자리매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즉, 미인곡 계열 속에 <속사미인곡>을 편입시켜서 이 계열을 규정짓는

『유배가사 갈등 구조 및 사대부 집단 의식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서울시립대 석사 학위논문, 2010.

3) 최현재,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연군의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8집, 우리말글학회, 2010, 4. 177~202쪽;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 『어문학』 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185~198쪽; 정홍모, 「영조조의 유배가사 연구—〈속사미인곡〉과 〈북관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2008, 107~128쪽.

제 요소들이 <속사미인곡>을 평가하는 일원적인 잣대가 된다. 이 경우 작품이 생산되는 개별적 특성이 소홀해지거나 당대의 정치사회적 문맥이 단순화된다. 더불어서 작품 속에서 이진유가 겪은 유배라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선명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개별 유배시가 작품으로서 <속사미인곡>의 내적 창작의 동인은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속사미인곡>은 유배가사가 장르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창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변화의 내용이나 방향이 개별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해명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작품은 영조 초엽 왕권과 신권이 갈등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유배의 정치 문화적 조건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므로 분석의 대상으로서 주의 깊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작품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화자가 유배의 공간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식 지향이 무엇인지에 논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탐색을 통해서 18세기의 소론계 사대부였던 이진유가 <속사미인곡>을 통해서 그려내고자 했던 유배의 현실과 그 문학적 시도가 의미하는 바를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727년 무렵 이진유의 현실적 국면

<속사미인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진유가 유배를 당한 1725년부터 실제 창작의 시점이 된 1727년 전후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파악해야 한

다. 이진유의 유배는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실각이 아니라 진영 간 대립에서 패배한 결과였다. 그것은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일어난 격렬한 정치적 대립의 소산이었으며 유배가사 역시 그 영향 아래에서 창작되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창작자가 구현하는 세계상과 의식지향을 이해하려면 이진유의 정치적 유배라는 흐름이 생성되는 1721년부터 1728년 무렵의 국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진유를 둘러싼 정치상황을 계기적으로 살펴서 그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진유의 삶에서 극적인 상황의 변화는 영조의 즉위와 더불어 나타났다. 이 변화는 경종 시기(1721~1724)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결과였으며 영조 초입은 경종대의 정치 변동과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경종이 즉위하고 몰년에 이르는 4년 동안에는 집권세력이 바뀌는 환국이 거듭되었다.⁴⁾ 이 환국은 공세적인 진영과 수세적인 진영이 번갈아서 모두 완전한 몰락을 겪는 것이었다. 이러한 거친 정치적 파고 속에서 이진유는 주요 등장인물이었다. 이진유 개인의 시간은 정치적 집단과 그들의 신념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시간에 압도되고 있었다. 이진유의 가

4) 홍순민, 『봉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0, 159쪽. 경종 원년(1721년)부터 그 이듬해 경종 2년 경에는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소론이 노론을 대거 숙청하고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역시 노론과 소론 사이에 정국 주도권이 급격히 교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환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신임환국이라 할 수 있다. 경종 4년(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죽고 왕세제 연잉군이 즉위하면서 정국은 대단히 불안정해졌다. 소론 가운데 노론을 처벌하는 데 강경파인 준소계 핵심 인물들은 자연히 중앙 정계에서 도태되고 온건파인 완소계의 일부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듬해인 영조 원년(1725년)에는 완소계도 몰려나고 노론이 정국의 전면에 진출하였다. 이 때 정국 주도 집단의 교체와 정국 전환도 분명히 환국의 범주에 드는 것이므로 이를 을사환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을사환국으로 등장한 노론은 신임옥사 당시 처벌된 노론 계열의 인물들은 신원하고 소론을 처벌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영조 3년(1727년) 노론 인물은 핵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소론을 불러들였다. 이를 정미환국이라 한다.

계는 소론 명문으로 이진유의 생부인 이대성은 소론 내부에서 급진적인 논의를 이끈 사람이었다. 이런 가문의 내력 속에서 이진유는 39세에 관직에 올랐고 경종 대에 정국을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 때 소론은 정국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론과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노론은 경종이 즉위하자 숙종의 정유독대를 근거로 삼아서 연잉군을 세제로 삼고 이어서 그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다. 경종은 처음 대리청정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것을 수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경종의 태도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다. 젊은 군주였던 경종은 자신의 안위를 둘러싼 문제에서 극단의 강박과 공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다.⁵⁾ 이러한 왕의 모호한 태도와 반대파와의 정치적 대립은 왕의 안위가 세력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었던 소론 급진파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급진파였던 소론 준론은 세제인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치열하게 반대하고, 노론의 의도와 요구가 왕을 겁박하는 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소론 간의 갈등은 김일경을 소두로 하는 준소계 7인이 신축소를 올렸을 때 극에 달하게 되었다.⁶⁾ 이진유 역시 이 신축소를 올렸던 7인 중의 한 명이었다. 신축소에서 소두였던 김일경은 세제의 대리청정이 노론의 사대신을 비롯한 무리들이 왕을 능멸하고 왕권의 교체를 시도한 역모라는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이 때 이진유는 대리청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경과 그 궤를 같이 했지만,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김일경에 비해서 좀더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⁷⁾ 이러한 이진

5) 박종성,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죄와 벌의 통치 공학』, 인간사랑, 2007, 715쪽.

6) 경종 1년, 12월 6일(임술), 『경종실록』5권 경종에게 영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무리들을 난신적자로 탄핵하는 상소가 이루어졌다. 김일경, 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등 7인이 연명으로 상소하였다.

7) 이진창의 『黨議通略』에 의하면, 이광좌는 이진유의 처벌을 말리는 자리에서 경종이 재위에 있을 때부터 세제(영조)에 대한 이진유의 태도가 김일경과 달랐음을 분명하게

유의 자세는 후에 영조가 권좌에 오르고 신축소를 올린 7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 시기에도 그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경종 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흐름이 생성되었다.⁸⁾ 즉위 시에 영조는 소론 중심의 정국을 형성하였고 급격한 권력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유는 영조 즉위년에 대사성에 오르고 주청 정사인 밀창군 이직과 함께 부사로 결정되어 청나라로 떠났다.⁹⁾ 그러나 이듬해인 1725년, 그가 돌아오는 길에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미 소론 준론은 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렸으며, 신축소를 주도했던 7인은 치죄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1725년 정월에는 김일경 등이 노론의 탄핵으로 주살되었고 함께 신축소를 올렸던 6인은 삭탈관직되었다. 이진유 역시 압록강을 넘기 전에 이미 치죄되고 유배가 결정되었다. 그는 강을 넘어 청국으로 갈 때는 당상관이었지만 한양으로 돌아 올 때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결국 1725년부터 1727년의 3년 동안 이진유는 남해의 절도인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1725년 정월에 유배가 결정되어 나주로 떠났고, 다시 7월에 나주에서 절도인 추자도로 이배되어 위리안치되었다.

지적하고 있다. 이진유는 세제를 공격하는 김일경의 지나친 태도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힘써서 영조의 지위를 옹호했다고 한다. 『黨議通略』, 『英祖廟』, 光佐疏下言 思晨泰徵 在乙巳時 亦嘗擬闕帥之望 非臣所獨薦引 因訟李眞儒之寃 曰尙儉之變眞儒泣告 景廟曰 殿下不誅此奴 何顏復入 先王殯殿乎 壬寅北使來封世弟 皇旨曰 國王如有螽斯之慶 王其再奏 時諸宰會議所以對 眞儒曰名號已定 他日一王子生 何用煩奏 此義豈獨眞儒知之 當時之臣莫不然也 然眞儒之向上赤心 皦然有如此矣.

- 8) 영조 즉위 시와 초엽의 정치적 상황은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이태진, 김백철 역음,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 9) 영조 즉위년, 9월 21일(병인), 『영조실록』1권, 영조 즉위년, 10월 6일(병자), 『영조실록』1권.

동시에 그 해 6월에 아우인 진검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이진유의 목숨 역시 위태로웠다. 유배는 사대부 죄인에게 내려진 가장 효과적인 형벌인 동시에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권력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⁰⁾ 말하자면 유배지에서의 삶은 불안과 공포가 함께 섞여있었다.

1710년대 후반 이래 당론에 의한 국왕 선택과 권력투쟁은 지배 세력 간의 양립할 수 없었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였다.¹¹⁾ 왕과 왕의 후계자였던 세제가 모두 암살의 위협을 겪었고, 각 당파의 정적들 사이에서 피를 부르는 대립이 있었다. 왕은 어느 세력이더라도 비대해지면 견제해야만 왕권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었다. 영조 즉위 직후에서 원년 정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왕은 소론 세력에게 당국을 맡기며 탕평을 주장했다. 이 탕평의 방식은 조제 보합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왕세제 시절 자신을 지지했던 노론의 부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왕 역시 신하를 등용할 때 충의 규범적 윤리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적 권력의 재편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로서 충과 의리를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론 세력이 전면에서 등장해서 역시 당론에 치중한 독주가 계속되자, 왕은 이것을 일시에 바꾸기 위해 다시 소론을 등용하는 정미환국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조 원년 정월의 노론 정권 성립으로부터 3년 7월의 정미환국까지는 소론 준론이었던 이진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중앙의 지지 세력이 차츰 약화되는 시간이었다.

10) <속사미인곡>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절도 유배가 골육조차 두려워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히도(海島)도 하고한테 원악디(遠惡地)를 골나내여/ 백년형극(百年荊棘)을 추즈도(楸子島)의 처음 여니/ 골육(骨肉)도 구시(仇視)거든 늬이야 니를손가”

11) 이종범, 『1728년 무신난의 성격』,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186쪽

1727년 7월에 정미환국이 일어나서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고 10월에는 이진유 역시 육지로 이배되었다.¹²⁾ 그렇지만 추자도에서 육지로 이배하라는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 3년 동안 중앙에 포진하고 있었던 정적들은 38차례나 장계를 올려서 이진유를 공격하였고 영조 역시 스스로 이진유를 죽이라고도 하였다. 이 때 이광좌, 심수현, 오명환 등의 옹호가 있었다. 이러한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유배 생활의 고통을 감당하며 이진유는 1727년 남해의 절해고도인 추자도에서 <속사미인곡>을 창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 속에는 이진유가 겪은 이 시절의 어려움이 절실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추자도에서 육지인 나주로 다시 이배된 후에도 불안한 현실은 계속되었다. 이진유에게도 신축소의 주동자였던 김일경과 동일한 형벌을 가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정적들의 요구와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영조 역시 이진유를 굳이 옹호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1728년에는 소론 급진파와 남인 일부, 지방의 일부 상인과 노비들이 결합한 戊申亂이 발발하였다. 이진유는 이 무신난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난의 주동인물이었던 박필현의 군관인 조만성이 나주에 있었던 이진유를 찾아와 ‘勤王赴京’을 종용하였지만, 오히려 이진유는 그를 나주영장에게 보고하였다.¹³⁾ 이진유는 연루 의혹을 받고 국문을 받았지만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었고 풀려나서 다시 배소로 돌아왔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유의 처지는 계속해서 더욱 곤궁해졌다. 무신난 이후부터 영조는 확실하게 노론 위주의 정국을 시도하였으며, 소론 일부가 정국에 참여하였어도 그들은 이미 이진유를 보호하려던 세력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영조를 보좌했

12)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영조실록』 13권.

13) 영조 4년, 4월 1일(신사), 『영조실록』 17권, 이종범, 앞의 논문, 209쪽 참조.

14) 영조 4년, 6월 10일(기축), 『영조실록』 18권.

던 탕평과 소론 청류는 정미환국 이후에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이들은 경종 대부터 과봉당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소론 당론에 집중했던 소론 준론 및 완론 일부와 분명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이진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대가 되어 주었던 소론 준론 세력 및 일부 완론은 정치적인 힘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외부의 정치 현실은 이진유를 둘러싼 삶의 조건을 악화시켰고, 유배의 현실은 점점 더 강박해졌다. 육지 정배와 절도 이배, 그리도 다시 육지 정배를 당하며 적소를 옮겨 다녔던 삶은 긴장과 공포의 연속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사이사이로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력의 추를 둘러싼 중앙 정계의 급속한 채편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신난이 발발하였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진유는 유배자의 신분으로서 무기력했다. 무신난이 정리되고 2년 후인 영조 6년 庚戌年에 또 다시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남인·준소 세력들이 궁궐의 상궁이나 환관들과 결탁하여 왕손들을 해하고 궁궐에 불을 질러 왕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모반의 당사자들은 바로 처형되었지만 이진유 역시 이들의 배후로 몰려서 물고되었다.¹⁵⁾ 결과적으로 1730년 6월 이진유는 다시 죄인으로 국문을 받게 되었고 반역자로 죽임을 당한다.¹⁶⁾ 이진유는 유배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정적으로부터 공격 받았고 역모 사건이 일어나면 매번 배후로 몰렸다. 그만큼 유배의 상황 역시 급박하고 위협했으며, 그 결말은 비극으로 끝났다. 이렇듯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은 실질적으로 죽음과 삶, 형벌과 용서가 상호 작용하며 공존했던 위태로운 삶의 시공간 위에서 창작되었던 것이다.

15) 조운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참조

16) 영조 6년, 5월 13일(경진), 『영조실록』 26권.

3. 유배지의 공간 분석과 유배의 체험

1) 樂土와 遠惡地의 중층성

<속사미인곡>은 크게 서사와 본사, 결사의 삼단 구조를 따르고 있다. 서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서술하는 내용이 본사에서 전개되고 그리고 결사에서 서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을 한다. 서사에서 화자는 님과 나 사이에는 소홀함이 없었는데, 유배형이 내려졌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¹⁷⁾ 결사에서 님이 나의 사정을 고려해서 방면해 주기를 고대하는 것으로 응답을 대신한다. 그리고 서사의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본사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서술은 화자가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든 그 지향점은 해배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화자는 삶을 소망하기 위해서 변치 않은 충정을 드러내고 유배의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속사미인곡>은 시상의 전개 상 네 부분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유배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 단락은 서사, 유배의 여정, 나주 정배, 추자도 정배, 그리고 결사로 5구분된다.¹⁸⁾ 이 중에서 유배지에 해당하는 공간은 나주와 추자도이고, 두 공간은 작품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처음 배소로 정해진 곳은 남쪽의 대도회였던 나주였고, 이배를 당한 곳이 절도 중의 절도인 추자도였다. 나주는 화자가 거론했듯이 낙도였던 반면에 추자도는 원악지였다. 먼저 나주 배소의 공간이 화자에게 어

17) 삼년(三年)을 님을 썬나 히도(海島)의 뉴락(流落)히니/ 내 언제 무심(無心)히여 님 의게 득죄(得罪)히가/ 님이 언제 박정(薄情)히여 날 데접(待接) 소(疎)히 히가/ 내 얼골 곱뎡던지 질투(嫉妬)홀산 중녀(衆女)로다/ 유한(幽閑)히 이내몸을 선음(善淫)히다 니르노쇠

18) <속사미인곡>은 전체가 4음보 1행으로 규정하였을 때, 187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사 부분이 177행이고 이 가운데 추자도 유배의 현실과 필자의 정서가 집중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122행이다.

편 의미였는지를 파악해 보자.

호남(湖南)길 더위잡아 노령(蘆嶺)의 올라쉬여
 북으로 도라보고 두세번 탄식(歎息)하니
 부운(浮雲)이 폐일(蔽日)하야 경국(京國)을 못볼노다
 금성산(錦城山) 바라보고 적소(謫所)를 좃즈가니
 남주대도회(南州大都會)의 낙토(樂土)를 처음보와
 주인(主人) 덩스군(鄭使君)이 마조나 반겨하니
 거처(居處)도 과분(過分)하고 의식(衣食)도 녀름(念慮)업다
 망나(網羅)의 벗기신 몸 이곳의 언식(偃息)하니
 가지록 님의 은혜(恩惠) 도쳐(到處)의 망극(罔極)하다
 시지욕살(時宰欲殺)하야 화식(禍色)이 층격(層激)하니
 도거정확(刀鉅鼎鑊)이 도석(朝夕)의 위급(危急)일새
 절도천극(絕島荇棘)으로 중노(衆怒)를 막으시니
 종시(終始)에 곡전(曲全)하심 오늘이야 더욱알다
 선력스방(宣力四方)은 신즈(臣子)의 직분(職分)이라
 봉사미로(奉仕微勞)를 일궈랴 전(全)혀 업다
 전후은포(前後恩褒)는 화곤(華袞)도곤 빛나시니
 이죄위영(以罪爲榮)은 이더욱 망외(望外)로다
 즈식(姿色)도 업슨 내오 지덕(才德)도 업슨 날을
 무어슬 취(取)하시며 무어슬 둥(重)히 녀여
 언언(言言)이 장허하며 스스(事事)이 두호(斗護)하샤
 비박(菲薄)헌 이훈(伊訓)몸을 다칠가 녀(念)하시니
 엇그데 만난 님이 정의는 님듯서듯
 님의뜻 나모르고 내뜻도 님모르며
 무슨일 이대도록 견권(縑纒)하미 곡진(曲盡)하고
 백년(百年)을 히로(偕老)흔들 이에서 더훈손가

남쪽 땅 나주 대도회로 유배를 와 보니 거처도 과분하고 의식도 염려할 바가 없다. 이곳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님의 은혜가 망극하다. 작품에서 님은 나를 나주 배소로 보냈지만, 님은 징별자가 아니라 보호자이다. 임금은 적대적인 정적들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화자를 유배 보냈다. 님은 나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언언이 장허” 하고, “사사이 두호” 하여서 보잘 것 없는 나를 절절히 염려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님과 나의 인연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 년해로한 사이처럼 서로 꼭진하다.

님과 나의 관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도 직서적으로 드러난다. 아이러니하게도 님이 화자를 유배 보냈기에 화자는 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유배 자체가 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나주 배소에서 지내는 생활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사시의 변화나 나주 사람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소의 사군이 반갑게 맞이한다고 했으니 이진유는 여전히 세력가로서 그 위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나주 배소에서는 도거정학의 운명이었던 화자를 구해 준 임금의 은혜를 “망극하다”, “중노를 막으시니”, “중시에 꼭진 함심” 등으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 도착해서 님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은 거의 없고 은혜만을 재차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신하로서 나의 봉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님의 은혜는 빛나서 죄를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돌릴 정도가 되었다. 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과도할 정도이다. 결국 이곳 나주는 화자를 죽음으로부터 도피시켜 준 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었다. 그러므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떠난 고신이 스스로의 재주 없음을 되돌아보고 새삼스럽게 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었다. 나주는 유배지이자 구원처이고 도피처였으므로 낙토였다.

반면에 나주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유배 공간이 바로 추자도였다. 최

중 유배지로 결정된 추자도는 원악지였다. 추자도로 위리안치가 결정이
나자 골육조차도 화자를 원수 보듯 하였는데 그것은 추자도 위리안치를
화자와 화자의 육친들이 함께 겪게 될 형벌의 시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
일 것이다.¹⁹⁾

님의 은혜(恩惠) 이럴수록 기질(忌疾)흠은 더 심(甚)흐외
히도(海島)도 하고한데 원악디(遠惡地)를 끝나내어
백년형극(百年荊棘)을 추즈도(楸子島)의 처음 여니
골육(骨肉)도 구시(仇視)거든 늬이야 니를손가
힝니(行李) 다 츠리고 금오낭(金吾郎)을 기드릴식
엇더타 우리 묘군(卯君) 금능(金陵)의 원덕(遠謫)흐니
문운(門運)도 건둔(褰屯)흐고 가화(家禍)도 첩첩(疊疊)흐다
니진항구(梨津港口)의 쥬즙(舟楫)을 덩돈(整頓)흐야
(중략)

동풍(東風)이 건듯블며 쌍범(雙帆)을 놓히다니
창파묘망(滄波渺茫)흐며 물밭근 하늘일다
고도(孤島)를 지점(指點)흐니 흑즈(黑子)만 계유흐다
시아장반(時夜將半)흐매 광풍(狂風)이 덩턴(接天)흐니
둥뉴실타(中流失舵)흐야 호흡(呼吸)의 위턱홀식
장년(長年)이 속슈(束手)하고 쥬둥(舟中)이 실식(失色)흐니
묘연(渺然)흐 이 내몸이 스싱(死生)이야 관계(關係)흐라
직싱(再生)흐신 님의 은혜(恩惠) 둥도(中道)의 귀허(歸虛)홀가
감심(甘心)흐던 모은 원(願)을 오늘날 일워줄가
경스(經史)를 묵송(默誦)흐고 넷스람을 싱각흐니

19) 유배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의 경우에 강화도와 제주는 비교적 상황이 양호했으나, 추자도나 흑산도의 경우에는 그 처지가 매우 참혹했다고 한다. 최인주, 『조선시대 流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47~48쪽 참조.

부강(涪江)의 덩숙주(程叔子)는 성경(誠敬)으로 득력(得力)하고
청회(淸淮)의 당즈방(唐子方)은 통신(忠信)으로 힘납으나
평싱(平生)을 첨검(占檢)하니 이 공부쇼여(工夫掃如)하다
취석(采石)의 착월(捉月)하던 니적선(李謫仙)과 함기 놀듯
상슈(湘水)의 장어(葬魚)하던 굴삼녀(屈三閭)를 거의 볼듯
봉창(篷窓)의 정금(整襟)하고 던명(天命)만 기드릴새
한조각 남글 어더 기계(器械)를 수보(修補)하니
전위위안(轉危爲安)이 저근덧 스이로다
스생(死生)이 유명(有命)하고 화복(禍福)이 직턴(在天)하니
오늘날 사라남은 우리님 도으신가

추자도로 들어가는 뱃길 부분은 하나의 장면으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화자의 시련과 고통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유배지에서 보내게 될 앞으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에도 추자도는 매우 열악한 유배 장소로 이름이 나 있었다. 자연환경이 험악했을 뿐만 아니라, 유배자가 배소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²⁰⁾ 님의 은혜가 깊어지자 그것을 질투하는 자들도 더욱 심해져서 화자는 결국 절도로 이배를 당했다. 추자도로 떠나기 전에 아우인 이진점이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되면서 가문의 양화는 더욱 심해졌다. 해남의 이진 항구에서 추자도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가 1725년 7월이니 여름이었고, 그 해 여름 바다는 일기가 평탄치 않았다. 그런데 오전에는 날씨가 위험하지 않아서 쌍범을 높이고 푸른 바다를 질러가며 끝없는 바다 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갔다.

20) 최성환,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 양상」, 『도서문화』 37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6, 156~166쪽 참조.

그러나 밤이 되자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은 흉폭해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뚝대조차 잃어버린 배에서 난폭한 파도를 겪으며 보이지 않는 검은 섬을 향해 가야 하는 화자는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화자의 절망은 작품 속에서 표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덤덤하다. “묘연흔 이내몸이 스생이나 관계하랴”는 태도이며, “직심하신 님의 은혜”가 헛수고가 될까 염려한다. 그리고 나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며 마음을 비운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온갖 어려움을 만나나, 그것을 천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다 보니 살아남게 되었다. 작품 전체에서 화자의 물리적 고통이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는 초입이다.

결국 계속되는 위협을 막아주는 사람은 곧 우리 님이며 나의 생사는 전적으로 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님의 유배 의도조차 의심되는 상황에 와서도 화자는 님의 선의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도, 두려움이나 절망과 같은 화자의 진솔한 내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자의 관습적 태도를 내세운다. 역사 속의 충신과 현신들인 ‘정숙자, 당자방, 이적선, 굴삼녀’를 반복·나열하여 지나친 감정의 고조를 막는다. 나의 눈 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유배로 흘려준 님이 우선한다. 즉, 추자도 유배는 형극이지만, 그것 역시 죽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혜로운 형벌이었다.

작품 속에서 유배의 공간은 중층적으로 나타난다. 전라도 나주는 낙토이며 님의 배려를 통해서 화자가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공간이 된다. 이 곳은 치유와 복권을 꿈꾸는 준비의 공간이 된다. 반면에 추자도는 악토이며 화자가 정치적인 곤경을 겪으며 실질적인 유배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나주와 추자도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낙토와 악토로 나뉜다. 그런데 시상의 전개를 따라가 보면, 추자도 역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간으로 보자면 죽음이 유보된 장소로 화자는 이곳을 삶의 장소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곳은 어느 상황에서도 님의 은혜가 배 풀어진 장소이다. 그러므로 추자도의 삶이 비록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원망과 분노로 점철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시의 부조화와 불안의 공간

유배는 형벌이며 이것은 비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유배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고 또한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때, 유배지를 일상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적응하여 반복적인 삶의 리듬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유배지 역시 한시적이지만 일상의 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다.²¹⁾ 그러나 이진유의 경우처럼 유배가 외부의 정치 역학에 의해서 언제라도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일상의 반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공간은 유동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둘러 쌓인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진유의 유배는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고 이 불안은 작품 속에서 시간의 균형감을 깨트렸다.

<속사미인곡>에서 사대부 가사 특유의 연속적인 사시의 시간 설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추자도에 입도해서부터이다. 그런데 이 때 사시는 정연하게 설정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유배의 실제 시간이 시작되었던 여름부터 배열되어 있으며, 여름1->가을->겨울->여름2이라는 구조를 지닌다.²²⁾ 또한 겨

21)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에 사대부들이 받았던 유배형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휴식과도 같은 성격이었다. 최성환, 앞의 논문 참조.

22) 사시의 의미 단락은 다음과 같은 행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름1:“님의 은혜 이럴 스록~다시곰 새로위라”(61행~84행), 가을:“가을이 점점 깊고~무슴말을 슈작홀고”(85행~101행), 겨울:“엄동이 집혀지고~싱긋의 처엄 보내”(102행~110행), 여름 2:“출풍도리화야~빅악만 구비후다”(111행~120행)

울과 여름2 사이에는 봄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봄은 스쳐지나가서 분명한 계절적인 시간으로 설정되지 않고 다시 여름이 이어진다. ‘여름1’은 이진 유가 배를 타고 입도한 그해 7월 여름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서는 유배 생활이 익숙해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여름2는 앞 선 가을과 겨울처럼 사시의 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서술하지 않고, 무더위에 나타나는 유배지의 고통스러운 환경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름1에서는 입도 후에 유배지에서의 고통이 시작되는 며칠을 주로 서술한다면, 여름2에서는 한 차례 사계절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겪게 되는 한여름의 가장 힘든 시간을 서술한다. 화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인 여름을 두 번 반복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시련의 시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절의 균등한 구분과 정연한 순서를 흐트러뜨린 것이다. 먼저 추자도에 도착하게 되는 여름1부터 살펴 보자.

동방(東方)이 기백(既白)하매 소리하고 낙범(落帆)하야
 석기(石磯)의 비를미고 도둥(島中)의 드러가니
 촌낙(村落)이 쇼조(蕭條)하야 수십호어가(數十戶漁家)로다
 풍우(風雨)를 무릅쓰고 외실(蝸室)을 촛즈드니
 모즈(茅茨)는 다닐니고 독창(竹窓)의 무지(無紙)하대
 상상옥누(床床屋漏)는 므른대 전(專)혀 업다
 말만흔 좁은 방(房)의 조슬(蚤蟲)도 만홀시고
 팔척당신(八尺長身)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틀서려 누워 긴 밤을 내와나니
 쥬둥(舟中)의 적신 의복(衣服) 어너불의 물너오며
 일행(一行)이 괴갈(飢渴)흔들 무어스로 구홀손고
 행탁(行橐)을 썰어내니 수두미(數斗米) 썬이로다

백죽(白粥)을 뿌어내여 돌너안자 뇨기(療飢)하고
복물(卜物)선 도박(到泊)흙을 일야(日夜)로 바라더니
여익(餘厄)이 미딘(未盡)하야 둥양(中洋)의 치패(致敗)하니
만스여싱(萬死餘生)이 스라나미 다행(多幸)하나
결활(契活)이 무칙(無策)하니 어이하야 지보(支保)홀고
십장형니(十丈荊籬)를 스면(四面)의 돌너치고
북편(北偏)의 궁글 두어 물길홀 겨유내니
구만리당텨(九萬里長天)을 덩둥(井中)의 브라보듯
듀야(晝夜)의 들니느니 히도(海濤)와 밍풍(盲風)이오
도모(朝暮)의 섯두느니 당무(瘴霧)와 만우(蠻雨)로다
서식(棲息)을 미딩(未定)하야 낭질(兩姪)을 니별(離別)홀시
당부(丈夫)의 일촌간장낭항누(一寸肝腸兩行淚)를 금(禁)홀소나
남관(藍關)의 별손(別孫)하던 한니부(韓吏夫)의 정경(情境)이오
월강(越江)의 송데(送弟)하던 뉴즈후(柳子厚)의 회포(懷抱)로다
압송관비별(押送官拜別)하야 넘계신대 도라가니
경경(耿耿)흔 일단심(一丹心)이 다시곰 새로워라

해가 밝아오자 겨우 추자도에 도착하여, 배소에 행장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는 과정이 서술되었다. 도착한 당일의 공간과 시간인데, “듀야(晝夜)의 들니느니 히도(海濤)와 밍풍(盲風)이오 도모(朝暮)의 섯두느니 당무(瘴霧)와 만우(蠻雨)로다”의 어구로 보았을 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절도의 자연환경을 요약하고 이곳에서 겪어야 할 고난을 짐작케 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있다. 작은 촌락에 어가만 수 십 호 있어서 그들에게 의탁할 처지가 못 되고, 유배된 집에서는 벌레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와실, 종이 없는 죽창, 상상옥누, 좁은 방, 수많은 조슬 등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더욱이 열 길이나 되는 가시 울타리를 사면에 친 위리안치의 유배형이 시작되고 겨우 집 북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외

부와 연결된다. 그러니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극히 좁아진다. 사회경제적 결핍과 정치적 고립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자질과의 이별은 가문으로부터도 완전한 고립을 의미하게 되므로 가족과의 연결이 더욱 간절하여져서 한유와 유종원의 고시를 덧붙여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부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긴다.

유배 생활이 익숙해지는 가을이 되면 화자의 태도는 변화를 보인다.

가을이 점점(漸漸)깊고 객회(客懷)는 노락(寥落)현대
 송옥(宋玉)의 비추부(非秋賦)를 초성(楚聲)으로 높이읽고
 뉴박이객(柳朴二客)을 초초(悄悄)히 상대(相對)하야
 용슬슈간옥(容膝數間屋)을 초창(草創)하를 경영(經營)홀시
 도둥(島中)의 모든 빅성 단심(百姓盡心)하여 완역(完役)하니
 번토운와(番土運瓦)하던 창화현풍속(昌化縣風俗)일다
 제도(制度)는 추익(湫隘)하나 거처(居處)는 쇼쇄(蕭洒)하다
 언양굴신(偃仰屈身)하미 이제야 조안(粗安)하다
 감군은삼스(感君恩三字)를 벽상(壁上)의 대서(大書)하고
 망미현(望美軒) 편익(扁額)은 도둥(島中)의 누모로리
 종일폐호(終日閉戶)하고 주셔(主書)를 피열(披閱)하니
 의리무궁(義理無窮)흠을 늣게야 씨드러다
 도작(鳥雀)은 본(本)터업고 오연(烏鳶)만 적괴며
 어두귀면(魚頭鬼面)갓하 포한(浦漢)이를 만나보니
 야록(野鹿)의 성정(性情)이오 락만(貉蠻)의 어음(語音)일다
 상대략략(相對脉脉)하야 무슴말을 슈작(酬酢)홀고

추자도에 터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되자 이 때부터 분명하게 계절의 바뀜이 나타난다. 가을이 되자 섬 주민들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짓고 편액을 달았다. 주자학 서책을 읽고 의리의 무궁함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추자

도에서 화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유배생활에서 실제로 집중한 일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된 평화로운 유배생활을 보여준다. 가을부터 화자에게 유배는 새로운 성격을 띤다. 화자의 시선이 유배지의 백성에게로 돌려지고 그와 동시에 임금에 대한 의리가 함께 인식된다. 원래 사대부와 임금의 관계는 그 둘 사이에서만 아니라 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재정립될 수 있다. 화자는 가을이 점점 깊어질수록 객회가 쓸쓸해지면서 송옥의 비추부를 읊으며 충신이 쫓겨남을 거듭해서 노래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손님을 맞고 백성과 힘을 합쳐서 집을 짓고 나자 거처는 살만해져서 ‘언양굴신희미이제야 조안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 후에 감군은 세 글자를 벽 위에 크게 쓰고 망미현 편액을 다니 그 행위가 섬 가운데 널리 다 알려졌다. 백성과 힘을 합치는 그 순간에 군은 되짚은 것이다. 이것은 섬의 백성들이 임금의 백성이듯이 화자 역시 임금의 신하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섬의 백성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따뜻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거처가 완성되자 화자는 종일토록 주자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의리를 따져보고 생각한다. 화자의 몸은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의리를 탐구하는 사대부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즉 의리지사인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섬에서 상대할 만한 인물은 없다. 절도의 사람들은 “야륙의 성정”이고 “뾰만의 어음”으로 대표되는 미개한 상태이다. 유배지 백성은 상대할 수 없는 야만이며 오랑캐이다. 즉 그들의 삶은 화자가 추구하는 정신의 삶과는 대척점에 있다. 이 때 화자는 적소의 백성을 길들이고 순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화자에게 어떤 새로운 인식과 각성의 순간을 주지 않았다.

겨울은 추위와 더불어 더욱 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졌다. 여름과 가을에 비교해서 겨울은 짧게 서술되었다.

엄동(嚴冬)이 집혀지고 육지(陸地)는 못 통(通)하니
 양식(糧食)도 핍절(乏絶)거든 반찬(飯饌)이야 의논(議論)하며
 염장(鹽醬)을 못먹거든 어육(魚肉)이야 벼를소나
 도동수십니(島中數十里)의 일년초(一年草) 희한(稀罕)하다
 조석(朝夕)밥 못니을제 방(房)답기 싱각홀가
 정도대명일(正朝大名日)의 소(素)국의 썩을썩어
 갯물의 저린 비츠 상찬(上饌)으로 올라시니
 어와 이경상(景像)은 생년(生來)의 처엄보내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자도는 육지와 연결이 끊어졌고 화자의 고립도 더 깊어졌다. 양식이나 소금 등 생활필수품들의 공급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고립 속에서 화자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담담하다. ‘~하니, ~하랴는 자문자답의 표현으로 화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반찬을 거론할 때가 아니며 더욱이 고기 반찬은 바랄 수 없음을 나열해서 강조한다. 조석밥을 다 지을 정도의 쌀감이 없으므로 방을 답히는 난방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겨울의 현실은 바로 정월 초하루의 광경을 통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화자는 정월 초하루 명절에도 고깃국을 먹지 못하고 갯물에 절인 배추가 상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지경은 화자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나마 지낼 만 했던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깊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유배를 가기 전 화자의 일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었다. 이때 가을의 평화로움과 겨울의 고통스러움은 대비된다. 가을은 16행으로 이어져서 평탄하게 길게 기술된 반면에 겨울은 실질적인 고통들을 명료하게 요약제시해서 8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겨울 다음에는 뚜렷하게 봄이 나타나지 않고, 그보다는 더위와 습기, 그리고 온갖 벌레에 의한 괴로움을

나열하면서 다시 무더운 여름의 고통을 상세하게 서술한다.²³⁾ 결과적으로 <속사미인곡>에서 계기적인 사시의 전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배의 공간이 자연의 시간적 순환과 조화롭게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 결국 유배의 공간을 부각시키는 하루와 사시의 조합이나 사시 속에서 하루의 나열과 같은 시간의 진전과 순환을 나타내는 정연한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자연물과 어울리는 사시의 전환을 조화와 안정으로 바라보는 사대부 화자의 균형감 있는 정서로부터 어긋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시의 공간 배치에 기댄 시상 전개 이후에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통찰과 정서적인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겨울이 배경으로 된 부분을 지나서 연속되는 단락에서는 고통과 자탄, 무고에 대한 호소, 그리고 보은의 의지라는 정서적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은 유배 공간의 불안정성과 유배 현실의 고통에서 기인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몰아치듯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통이 지금 추자도에서 마주한 현실에 기인한다면 화자의 자탄은 지나 온 세월, 즉 과거의 나에게 맞춰져 있다.

상인희물(傷人害物) 홀 것 세상(世上)의 하도할사

23) 춘풍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보다 관계(關係)허라/ 그물이 다 다툼(盡)토록 국화(菊花)를 못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의 축신(逐臣)을 누 우시며/ 영균(靈均)이 여기 온 듯 무어스로 석찬(夕餐)홀고/ 삼하(三夏)를 열딘(閱盡)허고 고향(苦況)을 포끼(飽喫)허니/ 염증(炎蒸)도 그지업고 비습(卑濕)도 즈심(滋甚)허다/ 승예문밍(蠅蚋蚊蟲)은 백(百)가지로 쏘지지고/ 사갈오공(蛇蝎蜈蚣)은 스벽(四壁)의 종횡(縱橫)허니/ 흥일도 흥황(興況)업고 백악(百惡)만 구비(具備)허다

동아(中夜)의 잠이업서 옹금(擁衾)하고 니리안자
 신세(身勢)를 자탄(自歎)하고 평생(平生)을 무념(撫念)하니
 고로(孤露)흔 이내몸이 자성(子姓)도 업슨내오
 장희(瘴海)의 병(病)이든들 구호(救護)하리 누이시며
 반계(盤溪)에 넷 폐려(蔽廬)를 뷔여신들 누 덕힐고
 스셔턴권(賜書千卷)을 고각(高閣)의 못거시니
 두서통(蠹書虫) 다먹은들 기뉘라셔 포쇄(曝洒)하며
 평천장만원화(平泉庄滿圓花)를 전벌(剪伐)흔들 누금(禁)홀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치는 것은 단지 승예문맹이나 사갈오공
 만이 아니다. 화자는 깊은 밤에 스스로 신세를 자탄하고 지나 온 평생을
 더듬어 보았다. 화자는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천리 밖에 있다. 화자는 지
 금 있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가 돌아가고자 소망하는 곳은 황
 폐화 될 것임을 예감한다. 자탄의 심사가 깊어지자, 멀리 떨어져 있는 서
 울의 집과 정원, 그리고 서각의 책들을 하나씩 따져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사람도 힘도 없음을 한탄한다. 서울의 집에 하사 받
 은 천 권의 책이 벌레를 먹어도 통풍해 줄 이가 아무도 없고 뜰 안에 가득
 한 꽃이 함부로 베어져도 막을 사람도 없다. 더욱이 평생을 거슬러 생각
 해 보면 “고로흔 이내몸이” 자손도 없어서 유배지 해도의 습기 많은 바다
 에서 병들어도 보살피 줄 이조차 없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서술할
 때 군은과는 무관한 개인적 소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화자
 스스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자탄은 자연
 스럽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천하(天下)의 무고(無辜)하니 나뉘기 쏘이실가
 유문왕(周文王) 티기(治岐)홀제 인정(仁政)을 베프시면

가련(可憐)흔 이내몸이 만드시 묻져들니
턴디간(天地間) 독립(獨立)햏야 스방(四方)을 들너보니
우리님 아니시면 놀을 다시 의지홀고
시운(時運)이 불행(不幸)햏야 천니(千里)의 썬나시니
내신세 고향(身勢孤子)흔줄 님이 모르실가
긴 소매들고 안자 넷 건양(愆殃)을 녀슈(歷數)햏니
우직(愚直)햏기 본성(本性)이오 광망(狂妄)흠도 내 죄(罪)오나
근본(根本)을 싱각햏니 님 위(爲)흔 정성(精誠)일식
일월(日月)ㄱ튼 우리님이 거위아니 조림(照臨)홀가

나의 무고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 호소의 대상이 되는 우리 님이 비로소 나타난다. 인정을 베푸는 주문왕의 백성이 되고 싶었듯이 천지 간에서 내가 의지 할 곳은 님밖에 없다. 님은 성인인 주문왕에 비견될 만하니 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숭앙이다. 시운이 불행해서 이런 님으로부터 천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님은 내 신세가 괴롭고 고독함을 알 것이라고 보았다. 님이 나를 믿듯이 화자 역시 자신을 성찰한다. 나의 우직한 본성과 광망한 행동 역시 그 본의는 님을 위한 정성에 있었음을 변명했다. 그리고 이 때 긴 소매를 들고 과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는 화자는 여성이다. 여기서 나의 무고함을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한 목소리의 효과는 증대된다. 임금과의 관계를 상정하였을 때, 여성화자가 등장하면 좀 더 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배의 현실이 가장 참혹할 때 그 순간을 임금에게 보이고 싶을 때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다. 감정을 보다 극적으로 노출하고자 할 때나 왕과의 사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여성 화자를 도입한다.²⁴⁾ 이것은 흔히 미인곡 계열의 노래들이 사용하는 문예적 관습이

24) 정인숙은 이러한 흔효적 목소리가 왕과의 사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다.

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 화자는 님이 그것을 알아서 결국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기대한다.

싱성(生成)하신 이 은혜(恩惠)를 결초(結草)하기 기약(期約)하나
 협스(篋筥)의 추풍선(秋風扇)이 어느날 다시날고
 청신(淸晨)의 혼즈누어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黃金)을 못어드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사리
 지하(芰荷)로 오슬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지어
 협둥(篋中)의 두어신들 늘 위(爲)하야 단장(丹粧)홀고
 고국(故國)의 도라갈 꿈 벽희(碧海)를 문이붉고
 옥누(玉樓) 놓흔곳의 야야(夜夜)의 님을 피서
 일당우불(一堂吁拂)의 슈답(酬答)이 여향(如響)하니
 전석(前席)의 문귀(問鬼)하던 가태부(賈太傅) 이갓홀가

살게 해 주신 이 은혜를 결초보은하기를 기약하지만 해배가 쉽지는 않다. 광주리 안에 넣어 두었던 철 지난 부채가 어느 날에 다시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맑은 아침에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지만 사랑을 되찾을 장문부를 살 돈은 없다. 화자는 이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안다. 유배의 처지에서 황금으로 장문부를 살 수도 없고 지하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를 지어 아름답게 단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보으하려고 하나 방법이 없고 그 안타까운 심사는 다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살려 주신 은혜에 보은하는 것과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님의 신뢰를 회복해서 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충신이었던 가태부의 일화를 가져와서 드러냈다. 화자는 결국 여성이 아니라 신하로 돌아가서 님에게 보은하겠다는 태도이다. 애정보다는 오히려 충심과 충정을 강조한다.

결국 화자가 말하려는 바는 자신의 무고함을 탄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여성으로 되었다가 남성으로 되었다가 그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나타난다. 여성화자의 경우에는 배신한 님의 사랑을 다시 찾으려는 태도를 드러내며 남성화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뜻에 따라서 유배길에 나선 충신의 가면을 가져온다. 점점 감정은 계속 고조되지만 결국에는 현명한 님의 처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매듭을 짓는다.

어촌원계성(漁村遠鷄聲)이 긴잠을 썬드르니
우리님 옥음(玉音)은 이변(耳邊)의 완연(宛然)하고
우리님 어로향(御爐香)이 의수(衣袖)의 품여세라
어느날 이내꿈을 진죽것 삼을손가
두려라 왕서기기지(王庶幾改之)를 여일망지(豫日望之)호노라

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최종적인 내용은 본사에서 초점을 맞췄던 유배의 현실감과는 거리가 있다. 결사에서 화자는 어촌 유배지에서 닭울음 소리에 긴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님의 옥음과 어로향이 주위에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즉 꿈 속에서 화자는 님과 만나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복원했다. 그러나 그 꿈을 실재하는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왕이 마음을 바꾸기를 소망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유배가사의 여정은 실제적으로 고통의 연속이고 그 도착지 또한 물리적·정치적 고립이 극대화된 장소였다. 그리고 유배라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제가 된다. <속사미인곡>에서 화자는 개방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고립된다. 중국→서울→나주→추자도로 가는 여정은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정치적 활동의 공간에서 처벌의 공간으로 이동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화자는 중앙 권력의 일원으로서 처벌과 감시의 대상인 타자로 바뀐다.

공간의 이동과 생산은 화자의 정서와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배지 공간에서 유배자는 억압적인 외부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화자의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는데 이러한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은 왕(美人)의 의지가 작용해야만 가능하다. 이 때 왕은 억압의 주체 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주체가 된다.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 역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저항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 저항은 후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딜레마 상황, 내적 긴장이 자신을 둘러싼 시공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존경심과 기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4. ‘思美人’의 긴장과 연군 의식의 의미

유배는 이진유의 실존적 공간을 중앙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던 유배자는 그 중앙 정치의 기억으로부터도 배제된다. 이런 상황은 작품 속에서 작자가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배제와 그것의 정서적 극복이 작품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배지는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각고의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순간을 제공하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배가사의 작자는 유배형을 내린 권력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스스로의 지향성을 드러내게 된다.

작품 속의 화자는 유배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대상, 즉 님에게

지속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연군의 감정과 의식을 개인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에는 사대부 사회의 관습적인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진유 개인의 정치적인 활동 맥락을 전제해 보면 한 때 정적이기도 했던 왕에게 무턱대고 연군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있어왔던 관습화된 방법을 가져와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교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여성 화자와 님이라는 관계를 상정하고 님에 대한 호의와 애정을 여성의 목소리로 드러내려고 하였다.

서술 과정에서 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면, 사대부 남성 화자가 아니라 여성 화자로 그 목소리가 바뀌었다.²⁵⁾ 하지만 <속사미인곡>에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대부 자아의 틀 속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대의 유배가사에 비해서 <속사미인곡>에서는 화자가 고통을 겪고 그것으로 인한 감정적인 토로가 드러나는 부분이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시련과 주관적인 감정 역시 군신관계와 충이라는 이념보다 선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 정치에서 과거의 적대자였던 임금에게 작자 스스로가 충성스럽고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하임을 증명하고 설득한다. 어찌 되었든 시적 화자의 생사는 님의 손과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처하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더라도 님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화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리의 공격과 참소를 막는 과정에서 님이 역

25) 즈색(姿色)도 업슨 내오 지덕(才德)도 업슨 날을/ 무어슬 취(取)히시며 무어슬 등(重)히 녀여/ 언언(言言)이 장허히며 스스(事事)이 두호(斗護)히샤/ 비박(菲薄)히 이흔몸을 다칠가 님(念)히시니/ 엇그데 만난 님이 정의는 닉듯서듯/ 님의뜻 나모르고 내쫓도 님모르며/ 무손일 이대도록 건권(縑縑)히미 곡진(曲盡)히고/ 빅년(百年)을 히로(偕老)히들 이에서 더흘손가

할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님의 의지, 믿음, 애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화자가 드러내는 연군의 감정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덕적 권력 관계에 바탕을 둔다. 이 때 임금의 도덕성은 의심 받을 수 없다. 임금의 도덕성이 의심 받는다면 통치 시스템 자체에 균열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배를 당한 작자는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주의 행위 역시 옹호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이 정서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자는 연군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군신관계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화자가 유배형을 내린 님에게 보이는 태도는 관습적이고 규범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술과정에서 반복해서 군은의 정조를 강조하면서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유배의 시간이 3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진유의 목숨은 유배지에서 여전히 위태로웠다. 이 때 화자가 매달릴 수 있는 규범은 왕과 신하 사이의 고래로부터 구축되어 있었던 안정된 질서였다. <속사미인곡>에서 화자는 이미 사대부 집단의 경험과 역사적 기억으로 고착화된 규범 윤리로서 충 관념과 연군의 정서에 기대고 그것으로부터 님과 공감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에는 비록 세제 시절에 화자가 반역으로 대립했던 왕이라도 그가 즉위 후 왕의 위치에 섰을 때에는 보편적인 충의 관념이라는 공통항에서 화자와 서로 공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님의 은혜는 이진유에게만 해당되는 사적인 개별성과 구체성을 띠지 않는다.

이 때 작품에서는 님이 계신 가상의 공간이 설정되지 않으며 님의 인품과 보살핌은 더욱 직서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허구를 통한 문학적인 재현으로 드러낼 만큼 여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다. <속사미인곡>에서 계속되는 님을 향한 기대와 찬사의 이면에는 이진유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심리적 억압, 불안한 미래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화자가 기대는 것은 왕의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의 행태라기 보다는 그러한 왕조차도 통어되는 구조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강조하는 당위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어야 했다.

신하와 왕 사이를 규정하는 이상적인 구조와 관념에 매달리는 화자의 태도는 작품 속에서 님에 대한 반복적 언급으로 드러난다. <속사미인곡>에 나타나는 목소리는 설득적이다. 화자는 서술을 통해서 님(임금)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한다. 즉 님이 나를 더욱 믿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배하여 주고 결국은 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자는 님만이 아니라 다수의 청자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각인시키고 스스로가 충신이라는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이 때 화자가 처한 고통이 리얼할수록 화자의 진술은 더욱 긴장감을 획득한다. 그리고 고된 여정의 실제적인 서술들은 화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동시에 되풀이해서 거론되는 무고함과 결합되어서 작자의 대화회적 발언과 노골적인 연군의식은 강화된다. 이러한 작품의 양상은 화자가 처한 실제 현실과 맞물려 작품 외부적인 울림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진유의 상황과 처지가 변호되고 옹호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 기록에서도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여겨졌다.²⁶⁾

26) 고순희, 앞의 논문, 205~207쪽 참조. 실록에서는 이양신이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이 도화에까지 전파되면서 이진유가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소론 사이에서 알려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순희는 이러한 이진유의 작품이 조선후기 가사문학이 가진 불온성의 일단으로 이해하고 사대부 가사에서 정치적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의는 소론계 가문의 시가 창작 모습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조선후기 사대부 가사의 변모를 이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것은 일련의 조선후기 사대부 유배가사가 창작되고 소통되는 상황에서 그 작품의 기능이 외부 세계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강해지면서 더불어 작품의 정치적 색채 역시 강해졌다. 이 점은 가사 향유의 측면에서 조선후기 가사의 전반적인 서사화 지향성과도 일정 부분 관련을 맺는다.

이진유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도가 이끄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옳은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화자가 스스로 명명하는 의리지사는 그가 걸어가는 길이 현재 임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라도 주체는 스스로 도덕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당성을 믿는 화자라면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조리 있게 돌릴 수 있는 체계는 바로 임금의 힘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님은 타자이지만 동시에 타자여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님과 내가 애정으로 교유하고 충의 관념으로 동조한다는 상호동일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은 현재 작가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은 임금과 화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은폐하는 장막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즉,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당위적 관계 혹은 소망하는 관계는 화자의 입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임금은 화자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현실의 적나라함을 피하면서 작품 속에서는 전통의 관습에 의존하여 자신이 소망하는 군신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남은 문제들

사대부 화자가 연군이나 忠이라는 사대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성의 세계이다. 그러나 연군이라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사대부 보편성의 세계는 현실의 임금과 신하라는 개별적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유배가사는 이 보편 관념과 사대부 개인의 개별적 현실이 조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글에서 18세기 정치인이었던 이진유의 가사 작품에 주목하게 된 이유 역시 이진유가 처한 유배의 현실이 어떻게 시대와 조응하는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논의가 그 범위와 대상을 18세기 일반으로 확대된다면,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시대적 동향과 사대부 지식인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우선 유배가사를 창작한 18세기의 사대부군으로 그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 논의가 가능한 18세기에 해당하는 작품 수는 9수 정도이다. 이 중에서 이진유와 그의 후손들인 이광사(李匡師), 이광명(李匡明), 이궁익(李肯翊)의 가사 작품들은 유배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가문 내에서 이루어진 창작의 특징적인 국면을 예상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가사 작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유배가사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가사 장르를 선택해서 창작을 수행했던 시대적 저변을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참고문헌

-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 『어문학』 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185~198쪽.
- 김낙진, 「의리—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조선유학의 개념들』, 한국사상사연구회, 예문서원, 2003, 487~510쪽.
- 미조구치 유조, 최진석 역,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 사상 명강의』, 소나무, 2004, 17~247쪽.
- 박종성,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죄와 벌의 통치 공학』, 인간사랑, 2007, 5~1145쪽.
- 서원섭, 『속사미인곡 연구』,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205~227쪽.
-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1~88쪽.
- 이병기,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집, 1956. 12, 116~123쪽.
- 이상무, 「유배가사연구」,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재식, 「유배가사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재준, 「유배가사 갈등 구조 및 사대부 집단의식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03쪽.
- 정홍모, 「영조조의 유배가사 연구~〈속사미인곡〉과 〈북찬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2008, 107~128쪽.
- 조윤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191~236쪽.
-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적성』, 보교사, 2004.
- 최현재,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연군의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8집, 우리말글학회, 2010, 177~202쪽.
- 홍순민, 「봉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0, 157~190쪽.

ABSTRACT

A Study on the Exile Experiences and the Mind of Yearning
for the King Described in *Soksamiingok*

Nam, Jeong-he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author was configuring his experiences in the place of exile in *Soksamiingok* written by Jin yoo Lee, who was one of Soron faction literati and was exiled to the Chuja Island in 1727. In the process of supplementing previous discussions, this study focused its discussion on what the orientation of consciousness was as revealed while the speaker was recognizing and reconstructing the space of exile. The main discussion analyzed the place of exile as double layered two spaces, and explained the meanings of experience that the speaker tried to express in the arrangement and placement of time and space. The emotion of yearning for the king exposed by the author in the space of exile was, while based on the morality of traditional ruler subject relation, was accompanied with the straightforward expression of personal emotion. In the work, exile did not simply mean a political failure but provided a motive for recognizing anew the moral power relation between the author and the king. In conclusion, in *Soksamiingok* the author expressed his emotion of yearning for the king outspokenly, and described personally experienced hardships realistically. Nevertheless, the author's attitude shows the tendency of concentrating on the structure and thought sustaining the ideal ruler subject relation and, at the same time, advocating his political position. Furthermore, this suggests what position Jin yoo Lee's *Soksamiingok* occupies in the development of exile lyrics written by literati in the late Chosun Dynasty.

Key Words Jin yoo Lee, *Soksamiingok*, place of exile, exile experience, mind of yearning for the king, double layered, 18th century

논문투고일 : 2014. 5. 1

심사완료일 : 2014. 5. 25

게재확정일 : 2014. 6. 2